

해남군 '땅끝서 시작되는 새 지방시대' 연다

인구정책 332억원 예산 투입 128개 사업...인구 7만명 회복

해남군이 인구정책 예산 332억원을 투입, 7만 인구 회복에 나섰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2023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출산·보육, 주거안정과 일자리,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 등 총 128개 세부사업에 331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땅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방시대'라는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청년세대

유입·정착으로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비롯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민·관이 함께하는 인구 증대 시책 발굴 등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세대 유입·정착을 위해 결혼장려 지원사업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임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청년문화복지카드사업, 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마련할 계획

이다.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임신부 건강검진비 지원, 가사돌봄 서비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신생아 양육비 및 첫 만남 이용권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이 추진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3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개관한다. 센터에는 해남군가족센터를 비롯해 공동육아나눔터, 공립해남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 가족 어울림 공간이 들어선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동네부역 등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 군민이 인구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기관(기업)이 함께하는 내직장 주 소갯기 캠페인과 이에 따른 전입 장려기여금을 지원하는 등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살맛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소외되는 세대가 없도록 살피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귀농인정착 지원사업 집행 진도군, 10일까지 접수

진도군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등에 사업비 4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며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진도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등 각 사업별 주어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귀농인을 위해 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용자 신청도 7일까지 받는다.

농업분야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창업자금 3억원과 주택자금 7500만원을 연 1.5%의 금리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과 진도군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백재현 기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지원 영암군, 지역경제 활성화

영암군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시 당일관광의 경우 20만~30만원, 숙박관광은 30만~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내국인의 경우 20명 이상, 외국인의 경우 4명 이상으로 지역별로 차등지원한다. 당일관광 시에는 관내 관광지 3개소와 음식점 1개소 이상, 숙박관광 시에는 관내 관광지 4개소와 음식점 2개소 및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여행업체는 관광일 5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정월대보름 맞이 풍년 기원제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강진군 군동면 화방마을 주민들이 마을 어귀 선돌(입석)에 마을주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벗짚으로 만든 옷을 입히고 있다. 강진군 제공

무허가 실뱀장어조업 지도·단속 신안군, 수산자원 보호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업 조업 및 선명, 선적항 미표기 어선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경우 선박의 주요 항행로 등 허가받지 않은 위치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야간 또는 안개로 인해 시계가 불량하거나 응급환자 후송시 항행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직·간접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실뱀장어 조업 시기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바지선을 불법 부설함으로써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뱀장어 조업이 끝난 이후에도 같은 바지선으로 민어 등의 포획을 위해 연중 불법개량안강망(일명:캔버스) 조업을 유지하고 있어 어업질서 문란은 물론 항행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군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은 선수 양현과 선미 외부에 선적항과 선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어선이 많아 집중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위반 할 경우 과태료(1회 25만원·2회 50만원·3회 100만원)를 부과한다. 은폐, 변경, 제거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안=홍일갑 기자

'생태체험 메카' 함평 생태공원, 멸종위기종 동식물 전시

반달가슴곰 상시 관람

절기상 입춘이 지나면서 함평군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생태체험 손님 맞이할 하고 있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함평지역 대표 관광지로 대동면과 신광면 일원에 조성돼 있다.

멸종위기 각종 동·식물을 보존·육성하고 전시 관람과 생태체험이 가능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공원은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대동제생태공원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원은 저마다 다른 테마로 조성돼 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함평군 제공

자연생태공원은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멸종위기 각종 동식물 보존 육성을 목표로 56만㎡ 부지에 조성했으며 자연생태과학관, 다목적전시관, 온실전시관, 반달가슴곰관찰원, 수서곤충관찰학습장, 우리꽃생태학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반달가슴곰관찰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야생동물 I 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9호 지정된 반달가슴곰 11마리를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국내 유일의 양서파충류 동물원으로 뱀, 악어 등 특색 있는 종을 관람할 수 있으며 악어·아나콘다관, 생태전시관, 거북관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100종 411마리(뱀 56마리·기타 파충류 188마리·양서류 104마리·초식동물 63마리)의 양서·파충류를 전시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1·2·3급 33종 62마리를 볼 수 있다. 삼악어, 늑대거북, 미안마비단뱀, 수마트라왕도마뱀, 크레스티드게코, 팻테일게코 등이 대표적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목포항 지난해 물동량 2531만톤... 전년 대비 5.9%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집계 수출입화물 ↓ 연안화물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22년 목포항 항만물동량은 2531만톤으로 전년 2389만톤 대비 5.9%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수출입 화물은 676만톤으로 전년 779톤보다 13.3% 감소했으나 연안화물이 1855만톤으로 전년 1610만톤 대비 15.2% 증가한 데 따른 것.

수출입화물과 연안화물은 각각 26.7%와 73.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수출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전년 630만톤에서 23.5% 감소한 482만톤에 그쳤다.

조선용 기자재가 중심인 철재 화물도 선박 건조기간에 따른 선박부력 생산량의 일시적인 감소 등으로 8.6% 줄어들었다.

반면 연안화물은 목포-제주 간 RO-

RO선을 이용한 연안컨테이너와 코로나 19 팬데믹 극복에 따른 도서와 내륙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수송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855만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수 목포해수청장은 "수출 자동차 물동량은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지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타 목포항 주요 화물에 대해서도 관련 업계와 물동량 처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올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무안군, 24일까지 접수

무안군(군수 김산)은 근로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22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관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소를 가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후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적격여부 조회 후 3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고향 진도에 고향사랑기부 박홍률 목포시장



진도군은 박홍률 목포시장이 고향인 진도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진도군에서도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관매도 출신인 박 시장은 진도군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박시장의 기부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변화하며 발전하는 진도군 건설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